

2026 신·편입생 ‘다전공’ 필수…인프라 부족 목소리도

강다윤 기자 rkdekdbs@khu.ac.kr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2026학년도 신·편입생부터 다전공·부전공·마이크로디그리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가 개편된다. 현재 1학년인 2025학번을 포함한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편입생 중에도 의학·간호·약학계열(약과학과 제외)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전공 정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수 교무처장은 다전공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입학 정원의 50%로 이내로 다전공 선발 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최소 선발 인원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것”이라며 “곧 규정 개정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기준에는 최소 선발 인원 없이 각 학과 별로 입학 정원의 최대 30%까지만 다전공 수강 인원을 선발할 수 있었다.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다전공 진입을 받는 학과에서는 ▲다전공 신청 인원의 70% ▲입학정원의 30% 중 인원이 적은 기준을 선택하고, 해당 기준 인원 이상의 학생을 다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규정은 내년 다전공을 희망하는 2025년



지난 5월 열린 2025 교육 비전 선포식에서 김진상 총장은 “내년 1학기부터 다전공 의무 이수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규연 기자)

이하 학번 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단일전공에 집중하고 싶거나 다전공 정원 문제로 인해 다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부전공 또는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학사지원팀은 “마이크로디그리는 현재 65개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40여개를 신설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러한 개편은 지난 5월 열린 ‘경

희 교육 비전 선포식’, 학(원)장회의, 총장 주재 혁신회의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김 처장은 “예전에는 단일 과에서 배운 것 하나만을 응용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미래에는 그렇게 한 분야만 공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를 두루 배워 통섭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신 것”이라 설명했다.

개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존

재한다. 이런 지적은 주로 ▲학업 부담 가중 ▲교육 인프라 부족에 집중됐다. 이가은(글로벌Hospitality·관광학 2025) 씨는 “이번 개편으로 학업 부담이 과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기에 다전공 선수강 과목과 본전공 과목을 함께 수강하며 학업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학사지원팀은 “다전공 이수학점 기준이 높은 일부 학과에 대해 기존

학점 조정이 있었다”면서 “각 학과 필수과목 및 선수과목 축소, 다전공생에 대한 유사 과목의 전공학점 중복 인정 범위 확대, 다전공 이수학점 기준 조정을 통한 학업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진 내 우려 목소리도 있다. 경영대학 박용승 학장은 “다전공 이수 인원이 늘어나면, 여러 단과대에서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전임, 비전임 교원 확충과 온라인, 하이브리드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과 유재수 학과장은 “지금 바로 인프라를 확장하기는 어렵고, 당장 3, 4학년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기에 저학년 학생들이 듣는 과목 수요부터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 요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온라인 강의 확대를 대안 중 하나로 구상 중이다. 김 처장은 “여러 교수님들께서 아직 하이브리드 강좌에 대해 잘 모르시는 상태라, 온라인 강좌를 추가 개설하는 정도로 시작할 것”이라며 “대신 교무처 차원에서 홍보를 통해 하이브리드 강좌를 점차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제2기숙사 방중 거주 기간 단축 “방중 활동 참여 위축 아쉬워”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 2월 방중 거주가 불가능한 제2기숙사가 또다시 거주 기간을 축소했다. 이에 더해 계절학기가 끝나고도 학교에 남아있고 싶은 제2기숙사·우정원 입사생 사이에서 ‘방중 거주 제한’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계 방중 입사 안내에 따르면 제2기숙사는 내년 1월 17일까지 거주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 지난 2년간 동·하계 방중 거주 기간은 ▲계절학기 기간을 포함한 약 3주 ▲약 4~5주 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다가올 동계 방학부터는 ▲계절학기 포함 약 4주로 선택지가 단일화됐다. 제2기숙사 행정실은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이유로 설명했다. 이

어 “이번 방학에는 내측 방의 책상 교체 작업이 예정돼 있는데, 가구 교체는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해보다 방중 기간을 다소 줄였다”고 덧붙였다.

국제캠 기숙사 2곳(제2기숙사·우정원)의 방중 거주 제한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캠(행복기숙사·세화원)은 방중 기간 전체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화원의 경우 잔류를 신청한 학생 중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는 별도의 퇴사 절차 없이 같은 방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다만 이는 양 캠퍼스 간 상이한 기숙사 별 운영 방식에 따른 것이다. 행복기숙사 서주희 담당은 “국제 기숙사는 학교 운영, 행복기숙사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어서 시스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유진(중국어학 2024) 씨는 “방학 동안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참여할 수 없어 아쉽다”면서 “실제로 작년 겨울에 학생회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미 본가에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급하게 기차표를 구해 면접을 보러 갈 수 없어 불가피하게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임재빈(소프트웨어융합학 2025) 씨는 “방중에도 일주일에 5번은 학교에 와야 하는데 다행히 할머니 댁이 인근에 있어 임시로 머물 곳은 있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준영(원자력공학 2021) 씨는 “학부 연구를 하고 있어 방학에도 연구실 출근을 해야 한다”며 “함께 출근하는 친구들 중 멀리 사는 친구들의 경우, 방학 동안 거주할 곳이 없어 필수적으로 자취방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2월 방중 거주가 불가능한 제2기숙사가 가구 교체로 인해 다가올 동계 방학 거주 기간을 축소했다. (사진=대학주보 DB)

고 말했다.

제2기숙사 행정실은 “2월에도 학생들이 쉼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숙사도 있겠지만, 2월 입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기간별로 인원을 따로 모집하는 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쉽지는 않다”며 “기숙사마다 위치, 수용 가능 인원, 운영 방식이 상이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우정원 사감실은 “학생들이 퇴사한 이후에 고장 나서 수리 혹은 교

체가 필요한 항목들이 생겨나서, 학생들이 없는 2월에 시설 정비와 청소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 입사 과정에서 자격 심사나 기숙사비 납부, 여러 행정 문서를 처리하다 보면 그 기간만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된다”며 “2월에도 거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소수 있다 보니 그런 수요를 반영하고 싶지만, 2월 기숙사 재정비 기간에 그런 절차까지 모두 거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